

[사회]

■ 르포-여수지역 적조 현장 가보니



여수시 해역에 적조현상이 10일 넘게 이어지면서 어민과 관계 공무원들의 '황토 살포' 방제도 연일 계속되고 있다. 주말이던 11일 여수시 남면 화태도 앞 해상에서 바지선 '대승호'에 실려 있던 황토를 적조 방제선 '전남919호'에 옮겨지고 있다. /인원주기자 ahj@kwangju.co.kr

'죽음의 붉은 띠' 막아라 초긴장속 황토 살포 총력

지난달 31일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적조(赤潮)가 2주째 여수, 고흥, 완도 등 전남의 황금 바다를 유린하면서 어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1일 오전 10시15분 여수시 화정면 자봉도(自峰島) 앞바다.

"적조다" 망원경을 들고 바다를 주시하던 적조 방제 지휘선 전남 202호(64t)박관순(53) 선장이 외쳤다. 폭 50m의 적조 띠가 3km가 넘는 바다를 빨개게 물들이고 있었다. 여수항을 출발한 지 1시간여 만에 찾아낸 적조였다.

현장 지휘자 이광익(50) 여수시 어업생산계장이 무전을 날렸다.

"자봉도 앞 양식장. 신속히 이동, 방제바람"

지시를 받은 방제선 '전남 919호'가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다. 이미 배 갑판에는 25t의 황토가 준비돼 있었다. 갑판장 이춘기(56)씨와 기관사 박종선(51)씨가 배의 뒷문을 열고 산처럼

쌓인 황토에 노즐을 겨누고 전해수(電解水)를 분사했다. 국립수사과학원이 개발한 '전해황토살포기'로 바닷물을 전기분해하면 적조 미생물을 죽이는 '차아염소소나트륨'(NaOCl) 성분을 가진 전해수가 만들어지고, 이를 황토와 섞어 바다에 뿌리는 방식을 쓰고 있다.

이 살포기를 쓰면 적조 구제 후 알칼리 수 중화로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적은 양의 황토로도 높은 구제 효율을 얻을 수 있어 2년 전부터 적조 방제에 이용하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2일 적조경보가 발효된 후, 매일 방제선 12척을 동원해 양식장을 포함한 92ha의 해역에 황토 2천여 톤을 살포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여수에 발생한 적조는 그동안 고흥과 장흥·완도 해역까지 퍼지면서 전남 연안 13곳의 양식장을 덮쳤다. 이로 인해 돌돔 등 40만 마리의 양식어류 폐사해 이미 6

억여 원 이상의 피해가 났다.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생선을 사먹는 사람들도 줄었다.

하지만, 황토 살포 외에는 이렇다 할 적조 방제 대책이 없어 어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전남도 등 해양수산 당국은 한 때 황토 살포를 억제하라는 지시를 내려 주민들을 혼란하게 했으면서도 효율적인 적조 방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남지역은 지난 2002년부터 5년간 적조로 인해 278억원의 피해(전국 피해의 78%)를 입었다.

한편 12일 국립수사과학원은 "당분간 기상악화로 일부 해역의 적조는 분산 및 소강상태를 보이겠지만 여수, 고흥, 완도, 장흥 등의 적조는 기상이 좋아지면 수온 및 일사량의 증가로 고밀도 적조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수=인원주기자 ahj@kwangju.co.kr

전문대서도 학사학위 받는다

내년부터 140학점 이수하면 취득

2008학년도부터 전문대에서도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들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공포됨에 따라 학위수여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개정·공포된 고등교육법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서 재직할 경력이 있는 자가 전문대 전공심화과정에 다시 입학해 필요 학점을 이수하면 학사 학위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대는 2008학년도부터 전문학사 학위과정 총인원 20% 내에서, 모집 단위별로는 100% 범위 내에서 전공심화과정 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사학위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을 갖춘 대학에만 인가를 내주는 한편 현장과 실무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4년제 대학들과 차별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 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졸업 또는 학력인정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한다.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은 교육부 장관의 심사를 통해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부 장관은 해당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을 심사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과정, 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기준, 수업연한, 이수학점 등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최소 이수학점은 전문대학 졸업 학점을 포함해 140학점 이상이 돼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사학위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을 갖춘 대학에만 인가를 내주는 한편 현장과 실무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4년제 대학들과 차별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릉 조짐
차차 흐려져 한두차례 비가 오겠다.

8월 13일
(음 7월 1일)
◇전국날씨

광주	흐리고 비	25~31℃
여수	흐리고 비	24~29℃
안동	흐리고 비	24~28℃
대구	흐리고 비	24~29℃
부산	흐리고 비	25~31℃
인천	흐리고 비	24~29℃
대전	흐리고 비	24~29℃
전주	흐리고 비	24~29℃
제주	흐리고 비	24~30℃
울릉도	흐리고 비	25~32℃
독도	흐리고 비	25~31℃
서해남부	흐리고 비	24~30℃
서해북부	흐리고 비	24~29℃
남해서부	흐리고 비	24~29℃
남해동부	흐리고 비	24~29℃
목포	흐리고 비	24~29℃
여수	흐리고 비	24~29℃
순천	흐리고 비	24~29℃
영광	흐리고 비	24~29℃
영암	흐리고 비	24~29℃
진안	흐리고 비	24~29℃
완주	흐리고 비	24~29℃
고흥	흐리고 비	24~29℃
보성	흐리고 비	24~29℃
곡성	흐리고 비	24~29℃
구례	흐리고 비	24~29℃
영광	흐리고 비	24~29℃
영암	흐리고 비	24~29℃
진안	흐리고 비	24~29℃
완주	흐리고 비	24~29℃
고흥	흐리고 비	24~29℃
보성	흐리고 비	24~29℃
곡성	흐리고 비	24~29℃
구례	흐리고 비	24~29℃

▲해돋이 05:50 ▲해질 19:24 ▲달돋이 05:47 ▲달질 19:4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4(화)	15(수)	16(목)	17(금)	18(토)	19(일)
날씨						
최저/최고	25/32	25/31	26/33	25/32	26/31	25/32



"독서로 아름다운 피서 하세요"

기증받은 헌 물건을 되팔아 남은 수익금으로 나눔 운동을 벌이는 '아름다운 가게' 점단점이 지난 11일 휴가철을 맞아 도서특별전 '현책, 천개의 날개를 달다'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일보·민중일보·광주어린이도서관·남양주책대여점·피터팬 아동도서할인매장·북 헌트·전라도닷컴 등에서 신간 및 중고 도서 3천여 권을 기증했으며, 400여 명의 시민들이 찾아 150여만원의 수익금을 올렸다.

/위작량기자 jrwi@kwangju.co.kr

이달 중순부터 증가할 우려가 크므로 버섯이 잘 익은 눈을 중심으로 예방을 강화, 초기에 다른 병해충과 동시에 방제할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고추 역병은 최근 잦은 비로 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비가 내릴 때 배수를 정비하고 병든 포기나 병에 걸린 고추는 파내 버려야 한다. 또 탄저병에 걸린 고추는 아예 땅에 묻어 전염원을 줄이고 담배

오징어·문어 닭은 회귀어종 발견

강원도 삼척시 임원항 동방 7마일 해상에서 오징어와 문어를 닭은 회귀어종(사냥이 잡혀 관심을 끌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임원항 소속 통발어선인 지영호(2.15t) 선장 도모(55)씨가 지난 11일 오전 3시에 조업 중 회귀어종을 잡았다고 신고했다. 이 어종은 길이 50cm에 15kg이며, 다리가 8개로 문어로 보이지만 생김새는 오징어를 닮았다. /연합뉴스

벼 흑명나방 등 '병해충 경보'

농촌진흥청은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벼 흑명나방'과 '고추 역병', '고추 탄저병', '담배가루이' 등 4개 병해충에 최고 주의를 요하는 '병해충 경보'를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확산이 우려되는 벼 이삭도열병,

벼멸구, 벼 흰잎마름병과 사과 점무늬낙엽병에 대해서는 경보보다 아래 수준인 '병해충 주의보'를 발령했다.

농진청은 벼 해충인 흑명나방의 성충이 최근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부화돼 작 개어난 유충으로 인한 피해가

나방과 동시에 방제하는 데 발생 초기에 알과 알, 풀기에 약액이 고루 묻도록 충분히 살포할 것을 당부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중국어에서 날아오는 흑명나방과 멸구류는 최근 높은 기온으로, 고추 등 원예작물의 병은 잦은 경우로 증식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며 "각 작물의 예방 강화와 함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외국인 산재근로자
전문병동 개설키로**

산재의료관리원은 14일 산하 병원인 인천중앙병원에 외국인 산재근로자 전문병동을 개설한다. 58개 병상 규모로 개설되는 전문병동에는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의료진이 배치되고 물리치료시설인 재활전문센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모국어 상담전화, 인터넷방, 전용 휴게실 등이 설치된다

/연합뉴스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ILDONG 위동제어

향산화제 보강

여름엔 특히 아로나민 씨플러스 피로는 풀고 피부는 건강하게!

여름엔 두더위와 강한 자외선으로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증가합니다. 과량 생성된 활성산소는 피로와 피부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유난히 더울 거라는 울 거꾸로 피로를 풀어주는 비타민 E가 함유된 아로나민 씨플러스는 바나나·토 토 토포는 미인 등 활성산소가 보강된 아로나민 씨플러스로 피로는 풀고, 피부도 건강하게 지키세요.

건강이 제일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피부가 좋아야 일하러, 살려야! 열매나 피로하겠어요

아로나민 씨플러스

아로나민 씨플러스는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을 함유하여 피부노화를 방지하고,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여 피부탄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피부염을 예방하고, 피부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아로나민 씨플러스는 아로나민 씨플러스와 아로나민 씨플러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로나민 씨플러스는 아로나민 씨플러스와 아로나민 씨플러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로나민 씨플러스는 아로나민 씨플러스와 아로나민 씨플러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